

보도시점 2025. 3. 17.(월) 14:00 배포 2025. 3. 17.(월)

담보력 부족한 녹색기업에 우대보증 지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테크 선도기업 현장방문하여 산업·금융계와 녹색 전환보증 현장간담회 가져
- 중기부·금융위에 분산되었던 녹색전환보증 예산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1,400억 원)하고 환경산업법 개정 등으로 보증사업 법적근거 완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오후 에코바이오홀딩스(서울 마곡동 소재)에서 기후테크 기업 및 금융기관과 녹색전환보증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녹색금융을 운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에코바이오홀딩스, 이피캠텍, 에스엠테크, 힘펠, 필즈엔지니어링, 신성플랜트 등 6개 기후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올해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으로 약 6.7조 원 규모의 녹색 자금을 채권·융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되었던 녹색전환보증 예산 1,400억 원을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에코바이오홀딩스의 수소충전시설과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계획을 살펴보고, 에코바이오홀딩스 임직원들과 수소 산업의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녹색전환보증을 통해 58만톤 이상의 탄소 감축 효과와 함께 지원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도 연평균 14% 이상의 매출성장과 8% 이상의 고용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테크 기반 보증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추진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1-6706)



- ① (일시/장소) 3.17(월) / 에코바이오홀딩스(서울시 마곡동 소재)
- ② (주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견실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산업 선도기업 방문, 업계 애로사항 및 금융지원(보증·여신 등) 필요사항 논의
- ③ (참석자)
 - (환경부) 장관(주재),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장
 -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7개 기관
 - (기후테크 기업) 에코바이오홀딩스, 이피캠텍, 에스엠테크, 힘펠, 필즈엔지니어링, 신성플랜트 등 6개 기업

④ (일정)

시 간	소요(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소개 및 현장 방문 	
14:25 ~ 14:3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환경부장관 인사말씀 	
14:35~14:4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전환보증 추진계획 발표 	환경부
14:45 ~ 15:20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 녹색전환 지원 위한 금융지원 필요사항 논의 	참석자 전원
15:2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 마무리말씀 및 폐회 	